

■美 러 '차기운 평화'의 시대 오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러시아가 정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 미국과 러시아가 '2차 냉전'은 아니더라도 '차기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미-러 관계에 대해 구소련의 붕괴 이후 최악의 상태인 것 같으면서 양국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국제 현안에 대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양국이 유럽과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면서 미-러 정상이 이제까지 원활하게 협력해왔던 대테러전과 핵비확산 분야도 협력만큼이나 대립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였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에 반발하며 중거리핵무기포기협정 일방 탈퇴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대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

이와 관련, 모스크바의 미-캐나다연구소의 세르게이 로고프 소장은 양국이 서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새로운 냉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亞 패권 공개 경쟁 구 소련 붕괴 이후 최악 관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 회의에서 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은 바뀌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은 경제, 정치,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러시아 일각에서 지난 1946년 세계에 '철의 장막'이란 용어를 알린 윈스턴 처칠의 연설과 비슷한 결정적인 순간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푸틴의 뮌헨 연설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 확대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명히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냉전은 한번으로 충분하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의 말처럼 양국 사이의 갈등기류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국 사이에 냉랭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

독일외교협회 러시아 전문가인 알렉산데르 라르르는 "서방진영이 러시아의 부활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차기운 평화' 시대의 출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다 함께 삼바춤을 춰요”



지구촌 최대의 축제에 일컬어지는 카니발 페레이드가 18일(현지시각)부터 이틀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 전용경기장인 삼보드르메에서 열렸다. 경연(프리미어리그)에 참가한 '임페리우 세라' 삼바학교 출신 무희가 화려한 장식과 함께 삼바춤을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美 상원,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안 부결

미국 상원은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처리를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원은 이날 오후 표결을 실시, 찬성 56, 반대 34표를 기록했으나 결의안 처리에 필요한 60표에 4표가 모자라 통과에 실패했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미군을 증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1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주둔 미군 증파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찬성 246, 반대 182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2020년까지 남북통일 가능성 높다”

新 아미티지 보고서…북핵 최종 해결도 그때 가능

오는 2020년까지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공산이 매우 높으며(a high probability)”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도 통일이 이뤄진 후에도 옛 소련 붕괴후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16일 발표된 신(新)‘아미티지 보고서’가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한·미·일 3국 사이에 단기적으로 어떤 견해차가 있든, 우리가 공동의 가치와 경제 및 안보 이

해의 공유로 맺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낙착되든 “세 동맹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율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한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의 과제로 제시했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관한 제언을 담은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 관한 전망에서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한

다”고 말하고, 따라서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가운데 북한의 불안정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경우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리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불안정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통일은 또 “한국에 너무 큰 부담을 줌으로써 한국의 민주제도와 경제번영을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 사전대비해 “외교와 억지면에서 유례없는 기민성(agility)을 발휘해야 한다”고 미·일에 권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日-中 국방,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 추진

일본과 중국 정부가 양국 국방 수뇌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양국 군 수뇌가 전용전화를 통해 상시연락 체제를 구축, 북한 문제 등 동아시아의 군사

정세에 대해 신속히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과 핫라인을 설치했다.

양국 간 관계는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도쿄=연합뉴스



손 안대고 먹기 경연

18일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의 한 마을에서 열린 전통축제 참가자들이 손을 대지 않고 당근, 사과, 야채를 먹는 경연에 열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라크 차량 폭탄·인도 열차 폭발·태국서도…

지구촌 곳곳 테러 일룩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시장에서 18일(현지시각) 차량 폭탄 3발이 터져 적어도 63명이 숨지고 129명 이상이 다쳤다. 또 18~19일 인도에선 열차 폭발사고가, 태국 남부에서도 3건의 연쇄테러가 발생해 각각 60여명이 숨지는 등 지구촌이 테러로 얼룩졌다.

이라크 폭탄 공격은 시아파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뉴바그다드의 한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차량 폭탄 2발이 동시에 터져 62명이 숨지고 3번째 폭발로 1명이 죽었다.

인도 하르야나주(州)에서는 19일 테러로 추정되는 열차 폭발사고가 발

생, 최소한 66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뉴스전문 채널인 CNN-IBN은 19일 오전 1시50분께 인도 하르야나주 인근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특급 열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객차 2개가 전소되고 최소한 6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8일 밤 태국 남부 3개주에서도 일련의 폭탄 폭발과 방화,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6명이 죽고 53명이 부상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태국 방콕에서 남쪽으로 1천500km 떨어진 알라주에서는 18일 오후 7시



에서 8시 사이에 상점과 식당, 쇼핑센터와 호텔을 겨냥한 15건의 폭탄폭발로 2명이 죽고 33명이 부상했다.

위치가 톤다영 군 대변인은 이날 발생한 일련의 테러는 이슬람 분리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바그다드=뉴델리=방콕=연합뉴스

/ 중국서 부수입으로 폭리 챙기는 4대 직업 /

관광안내원·의사·교사·장의사

중국에서 합법적인 임금도 아니고 불법적인 수입도 아닌 부수입으로 폭리를 챙기는 4대 직업으로 관광안내원과 의사, 교사, 장의사가 꼽혔다.

중국 춘성만보는 19일 대다수 관광안내원들은 기본 월급을 못 받고 상징적으로 일정 보수만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관광안내원들은 관광쇼핑센터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부수입의 주요 재원으로 삼아 판매금액의 20~50%가 관광안내원과 교사들의 수수료로 돌아간다.

부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는 직업으로는 역시 환자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거나 제약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일이 끝나고 부업까지 할 수 있는 의사들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중국에도 고액 과외수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선생들도 과외지도도 큰 돈을 벌게 되면서 부수입으로 폭리를 취하는 직업군에 속하고 있다.

장의사들도 고인을 위해 돈을 많이 써야 후손들의 폭격이 높아진다면서 장례식 비용을 마음대로 올리고 상주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올리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적립' (National Debt Savings)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promoting the benefits of saving through national debt. The text includes '국채적립' and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저축' (Saving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There is a QR code at the bottom right.